

# 중국, 3000만명 탈빈곤 정책 펼친다

### 티베트·위구르족 거주지 집중 연 소득 39만원 빈곤선 설정 “소수민족 유희책” 시선도

중국에 앞으로 3년간 3000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하기로 하고 티베트, 위구르족 거주지에 탈빈곤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빈곤부양개발영도소조 판공실은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의 탈빈곤 성과를 제시하며 향후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3구3주’(三区三州)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인프라가 취약하고 빈곤 원인이 복잡해 탈빈곤 되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대부분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된 방한용품 없이 5km를 통학한 '눈송이 소년'.

3구는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남부지역, 사짱(西藏·티베트) 자치구, 칭하이(青海)·쓰촨(四川)·간쑤(甘肅)·윈난(雲南)의 티베트족 거주지구를 말한다. 3주는 간쑤

의 사저우(夏州), 쓰촨의 량산저우(涼山州), 윈난의 누장저우(怒江州)를 일컫는다. 2016년말 현재 이들 3구3주 지역의 빈민은 전국 빈곤인구의 8.2%를 차지하고 빈곤 발생률도 16.7%로 전국 평균의 3.7배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연간소득 2300위안(39만원)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무원 빈곤부양 판공실 류용푸(劉永富) 주임은 “앞으로 3년간 3000만명의 빈곤 인구를 구제하고 8만곳의 빈민촌, 600개 빈곤 현(縣)을 가난의 대오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중서부 22개 성 책임자들과 빈곤퇴치 정책에 전념하겠다는 ‘책임서’에 서명토록 했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시 주석도 3주 지역중 한곳인 쓰촨 량산저우의 소수민족 마을을 시찰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중에서도 신장 지역의 탈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안에 신장 남부의 카슈가르(喀什), 호탄(和田), 크즐수키르키스, 아크수(阿克蘇) 4개 지구에서 모두 40만명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 지구의 192개 지역에 2020년까지 관리들을 파견해 빈곤인구의 소득향상, 취업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신장을 이슬람 테러세력과 분리 독립 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치안 안보의 최일선으로 꼽아 대대적인 사회·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소수민족 유희책의 일환으로 빈곤퇴치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 이란 여객기 산에 충돌



### 66명 사망자 낸 이란 여객기 25년째 운항...산에 충돌 파괴

18일 오전 8시(현지시간)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륙해 남서부 코갈루예·보에르 아흐마드주(州)주도(州都) 아수즈로 향하던 현지 아세만항공 소속 여객기가 산에 충돌하면서 완전히 파괴됐다.

아세만항공사는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60명과 승무원 6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사고 기종은 쌍발 터보프롭식의 중단거리용 여객기 ATR72-212(제작연도 1993년)다.

이 여객기는 3주 전에도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을 이륙했다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이 여객기가 부품이 없어 이란 남부 시라즈 공항에서 상당 기간 계류했다가 지난해 11월 말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아세만항공은 “사고 여객기의 주기장은 이 기종을 다룬 경험이 풍부했지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로 민간 항공기와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항공 사고 위험이 크다. /연합뉴스



호주 총리의 ‘가족 외교’ 19일(현지시간) 인도를 일주일에 걸쳐 방문하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오른쪽 두번째) 총리 가족이 마다바드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아수람에서 물레를 돌려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북제재속 북·중 2번째 무역특구 추진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북·중 접경을 무대로 2번째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접경에는 양국 교역의 거점인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2015년 10월 호시무역구가 처음 개장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업체 참여 없이 만 2년4개월째 파행 운영됐다. 그러나 호시무역구는 중국·북한 양쪽 변경민에게 상품교환 활동을 허용하는 등 북·중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훈춘과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 사이에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류뉘다오(柳多島) 변민 호시무역구’ 설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훈춘 사투썬 통상구와 인접한 두만강의 하중도인 류뉘다오에 호시무역구를 건설해 훈춘과 북한 경원군 양쪽 주민들에게 상품교환 활동을 허용하고 하루 8000 위안(약 135만7000원) 이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120 ‘선명후암’ 현종 황제

현종(玄宗, 685~762)은 개원지치(開元之治)를 구현했으나 말년 도교와 향락에 빠져 안록산의 난을 초래했다. 선명후암(先明後暗)의 대표적인 황제로 평가된다.

본명은 이융기(李隆基)로 예종의 3남이다. 일찍이 입지왕으로 봉해졌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측천황제 퇴위 후 황제로 복귀한 중종의 암살 사태였다. 중종비 위황후는 딸 안락공주와 공모해 710년 중종을 신룡전에서 목살했다. 중종의 아들 이종무가 황제가 되자 황태후로 존송되었다. 예종 이단과 그의 여동생 태평공주와 조정을 양분했다. 예종 일파를 제거하려는 위황후의 음모에 맞서 이종무는 설송간, 진현례, 갈복순 등과 연합해

한 선정을 펴는 관리”로 평가받았다. 유각양춘(有脚陽春)이라는 고사가 여기서 유래했다. 이후에도 소정, 장열, 장구령과 같은 문사들이 재상으로 활약했다. 현종시대 34명의 재상이 임명되었다. 장열은 측천시대 흡수로 유배됐던 명령지사였다. 중서성과 문하성을 중서문하성으로 합쳐 행정 효율을 높였다. 군인도 20만명 줄였다. 징병제를 도입해 군대도 개편했다. 조운의 개량과 둔전의 개발에 나섰다. 돌궐, 토번 등 변경세력을 토벌해 국경의 안정을 도모했다.

재위 후반기에 접어들자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다. 736년 일족인 이임보가 재상이 되었다. 구말복검(口蜜腹劍), 입에 꿀이 있고 뱃속에 칼이 있다는 고사처럼 이임보의 20년 가까운 권력장악은 당 조정을 음모와

### 도교·향락에 빠져 안록산의 난 초래

승리했다. 위황후 일파가 제거되자 이단도 다시 황제가 되었다. 태평공주가 실세가 되어 조정을 좌지우지했다. 712년 예종이 퇴위하고 이종무가 황제가 되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훈이 있는 자를 세우야 한다”는 논리로 장자인 이성기를 제치고 제위에 오른 것이다. 712년 태평공주 일파를 처형하고 본격적인 친정을 나섰다. 위대한 개원성세가 시작되었다.

일차적으로 황제 권력 강화에 나섰다. 위황후와 태평공주 제거에 공을 세운 중신들을 숙청했다. 태평공주의 음모를 고발한 최일용, 유유구, 왕거를 지방으로 내쫓거나 강등시켜 힘을 빼앗았다. 실제로 부상한 왕거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세도정치의 부작용을 방지했다. 정권 초기 요승과 송경이라는 걸출한 두 재상이 황제를 보좌했다. 요승은 위기에 잘 대처했고 송경은 법을 잘 지켜 정의를 보존하였다. “당대의 재상으로 이전에는 방현령과 두여회를 꼽고, 후에는 요승과 송경을 꼽으니 이들과 겨룰 사람 달리 없다. 두 사람이 버려 들어갈 때마다 황제는 번번히 일어서서 맞이하고, 물러갈 때는 난간까지 나가서 보냈다.” 자치통감에 있는 기록이다. 요승은 10개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국정개혁에 팔을 걷어부쳤다. 부패·무능 관리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부패·무능 관리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부패·무능 관리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시켰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귀족이 주로 취임했던 지방 절도사에 외국인 출신을 허용했다. 혼혈인 잡종 출신 안록산이 실제로 등장했다. 양귀비가 후궁이 되자 정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도교에 빠져 사원에 막대한 돈을 썼다.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새로운 실세가 되면서 이임보와 양국충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임보 사후 양국충의 전횡이 이어졌다. “군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양귀비에 대한 충애에 비례해 정치는 나라에 빠졌다.

매년 겨울에는 여산 온천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744년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화청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양귀비의 세 언니가 누리는 사치가 황궁에 비견될 정도였다. 사회적 과소비가 왕조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평로, 법양, 하동 3도의 절도사를 겸한 안록산이 755년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하에 하북에서 거병했다. 장안 외곽의 동관이 무너지자 현종은 사천성으로 도망쳤다. 장안 서쪽의 마외역에서 양귀비와 양국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시인 두보의 시 역석(憶昔)에 “개원의 전성시대를 되돌아보니 작은 마을에 만호의 집이 있네”라는 구절이 있다. 현종의 말로는 아내고 사찰과 도교사원을 과감히 정비했다. 송경은 덕정을 베풀어 “따뜻

###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